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 차등 폐지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시는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함께,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양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193건이었으며, 이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물빛축제 먹거리

부스 위생교육 실시

정읍시가 2025 정읍 물빛축제를 앞두고 먹거리 부스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일 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열렸으며, 축제장에서 운영될 한시적 식품위생업소 25개소 영업주가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식품 취급 시 주의사항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가격표 게시와 가격표에 따른 요금 부과를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품 보관 방법과 안전관리 요령 등도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물빛축제 기간 동안 식품 중독 예방과 부스 내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지도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미래발전 청사진 그린다

제7기 미래전략자문단 위원 12명 위촉...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

정읍시가 시정목표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7기 미래전략자문단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미래전략자문단은 산업·환경·문화·농업·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집약 산업 육성, 교육환경 개선,



정읍시가 시정목표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7기 미래전략자문단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세계적 체류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미래전략자문단 위

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정읍에 새롭게 반영되는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13일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부안군, 사업설명·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부안군은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국

토교통부의 지역특화 분야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줄포면 줄포리 643·3번지 일원(25만 900㎡)을 대상으로 하며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줄포위케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체류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14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우편, 방문, 이메일(nother19@korea.kr), 팩스(063-580-4454) 등을 통해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도시재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80-4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이평면 이장단과 현장 소통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5일 이평면 B식당에서 열린 '이평면 이장단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평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주민과 시를 잇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폭염과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이 시장은 "예산과 법령 범위 내에서 건의 사항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참여 확대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먹거리 · 소무대공연 등 부스 운영자 모집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월29일~11월2일)' 기간 운영될 먹거리·간식·직거래장터 부스, 소무대 공연, 체험, 플리마켓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먹거리·간식 부스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이색 간식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직거래장터는 고창 농특산물과 수공업품 등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소무대 공연 부문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축제장 소무대에서 펼쳐지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 무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플리마켓(체험연계)은 수공예, 빈티지 아이템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셀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모양성제는 전통문화유산인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고창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세계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제23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1월 16일 개최

10월 2일까지 참가자 접수

마라톤을 사랑하는 전국 마라토너들의 흥겨운 축제인 '제23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16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매년 11월 셋째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는 고창군 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한다.

종목은 건강코스(5km), 단축코스(10km), 하프코스(21.0975km) 3종목이다. 참가비는 건강코스는 1만원, 단축·하프코스는 3만5000원이며 황토배기 쌀, 복분자주 등 다양한 특산품이 기념품

으로 제공된다.

고창군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창의 보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함께 달려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초대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보물과 함께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gcrun.com)에서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하반기 수강생 모집

부안군은 오는 9월부터 운영되는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하반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전북시민대학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학습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교육의 실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지역 정체성 강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사회 변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강좌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반려견의 특성과 행동 이해, 생활 속 케어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반려견과 건강 동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생생형 시를 활용하여 지역 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상품화하

는 실습 중심의 '생생형 시와 함께하는 로컬브랜딩' 강좌도 마련되었다.

또 부안의 로컬 농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개발하고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부안, 맛캐다', 지역의 역사와 삶을 지도로 엮어보는 '부안 역사문화 고지도 탐하기'는 부안민의 문화와 이야기를 학습으로 풀어가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심리운동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모두를 위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평생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며 차별 없이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평생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실천적 배움의 장"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